

강릉지역 전시문화시설의 현황 및 진입특징

Approach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Exhibition-culture Facilities in Gangneung

변 경 화* 조 원 석** 권 영 규***
Byun Kyeonghwa Cho, Won-Seok, Kwon, Young-Gyu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roach characteristics, relation to other facilities, and current status focusing on 28 total of exhibition-culture facilities in Gangneung. The results are following as. First, 19 facilities are located in urban area and nine are located in country side. With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Gangneung which is mountains in west and sea to east, three are located in high hill side and four are in sea shore among nine facilities. Facilities in urban area converge to *Gungpodae* and *Ojukhuk* which are symbol space in Gangneung. Those facilities started to have been increased from 1990s and rapidly increased from 2000s. The reason is that people have been interested in culture and art in society in general. In building structure, buildings related with traditional contents were constructed with wooden structure while buildings have been mainly constructed with modern ways such as steel and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Second, the 28 facilitie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by function of other space or facilities within same a site or a building. The three types are themselves usage only, multi-function, and park type. The multi-function type is re-classified into two; public type and commercial type. Those functions have changed according to changes of society and times. Finally, for approaching to the exhibition-culture facilities with general transportation, the mean distance from the closest bus stop to those facilities each is 280m and 27 facilities are located within 670m from the closest bus stop. For approaching way using by car creates movement along road-building site-parking space-main entrance of building. When based on main entrance by the movement, parking space located in front side of main entrance is the largest, next is in the side, and the least is in back side. Various factors such as approaching form from road to parking space and space size between main entrance and parking space influence to approaching ways of exhibition-culture facilities in Gangneung.

키워드 : 전시문화시설, 전시문화시설의 용도, 도로와의 관계, 주차공간, 강릉

Keywords : Exhibition-culture facilities, Usage of Exhibition-culture Facilities, Relation to Road, Parking Space, Gangneung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960·70년대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구성요소들 가운데 물질적인 부분이 특히 강조되어, 문화예술 분야는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 폭 넓게 인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문화정책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다양한 변화요구에 대한 대응으로서 건축, 예술, 문화 등의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예술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전시장과 같은 다양한 지역 문화시설들이 조성되고 있다.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전국문화기반시

설 총람에 의하면, 문화기반시설은 매년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2005년 1,133개소에서 2012년에는 2,182개소로서 거의 두 배정도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공도서관과 등록 박물관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

문화시설은 일상 생활문화를 수용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문화를 향유하고 체험하면서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지역자원이다. 따라서 문화시설은 지역의 상징적 랜드마크로서 인식되기도 하며, 관광객을 끌어 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많은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인류의 문화적 산물과 유산을 후세에 전승하기 위해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조사하는 ‘연구기능’과 일반인에게 감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전시기능’, 그리고 이를 통해 문화적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교육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 중에서 ‘전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전시를 위하여 혹은 전시를 통하여 연구와 교육의 기능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톨릭관동대학교 첨단해양공간개발연구센터 조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 khbyun@cku.ac.kr)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연성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R1A2A2A04015403)

1) 문화체육관광부, 2013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pp.18-19.

전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나 시설물에 대한 고찰은 지역의 문화와 교육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강릉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전시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건축물의 위치와 물리적 현황 및 개요, 다른 시설 및 공간과의 관계, 그리고 접근 및 진입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강릉은 태백산맥 동쪽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수한 역사적 문화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도시로서 역사·문화·교육의 도시로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 지역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전시문화시설에 대한 고찰은 지역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문화시설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종합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 중 전시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시시설을 박물관과 미술관이라는 용어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념관, 홍보관, 아트센터, 갤러리 등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언급된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의 용어에 국한하지 않고, 「전시」 기능이 있는 공간이 존재하거나 「전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건축물 및 시설물을 「전시문화시설」로 총칭하여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언급하는 4가지 유형의 전시시설 중 조각이나 조형물과 같은 전시용품과 조각공원은 건축물의 범주에서 벗어나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공원 내에 조성된 기념관이나 전시관도 전시를 목적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연구대상의 범위로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인 전시문화시설의 선정은 먼저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홍보관, 갤러리 등 전시와 관련된 건축물, 공간, 시설을 조사하여 총 36개의 시설물을 찾아내었다.

다음으로 36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답사 및 건축물관리대장의 열람 등을 통하여 전시의 기능 및 목적이 없는 소매점의 경우²⁾와 전시문화시설이지만 현재 폐쇄되어 운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8개의 전시문화시설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28개의 전시문화시설에 대하여 일반적인 현황, 타 시설물과의 관계, 접근 및 진입체계를 조사하였다. 특히 접근 및 진입체계로서 <도로→주차공간→시설물의 주출입구>까지의 동선체계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입장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2. 전시시설에 대한 선행연구와 현황

2) 예를 들면 소매점의 간판에 '갤러리'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1 전시시설에 대한 선행연구

공공문화시설에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복합문화시설 등 공공적인 목적을 가진 건축물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전시시설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뮤지엄(museum) 또는 뮤제(musee)라 불리는 박물관(또는 미술관: Museum of Art)은 고대 그리스에서 미술을 관장하는 신(神) 뮤즈(Muse)를 모시는 전당을 뮤세이온(Museion)이라고 부르면서 유래한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미술관 역사는 헬레니즘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의 전리품(戰利品) 가운데서 가장 값진 것이 미술품이었는데, 그에 따라 미술품의 컬렉션이 성행하였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19세기, 20세기에는 과거의 미술관 개념으로부터 탈피한 미술관이 생기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수장의 개념에서 벗어나 공공적인 보존과 대중을 위한 전시가 중심이 되는 미술관으로 변모하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은 1911년 11월에 낙성된 창덕궁의 자경전 위치에 일제식민지 당국에 의해 세워진 <이왕가박물관(李王家博物館)>이다. 한국최초의 현대식 미술관은 1986년 개관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우리나라 미술관 건축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³⁾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문화시설의 한 분류로서 전시시설에 대한 연구보다는 <문화시설>, <복합문화시설>, <지역문화시설> 등과 같이 공공문화시설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분류해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1990년대 초반에 다루어진 문화시설의 정의나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이다(김창언·이범재, 1990; 정주성·임영배, 1991). 둘째는 전국적으로 문화시설이 증가하게 되면서 지역문화시설의 분포 및 현황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지역성이나 문화성에 기초한 연구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지역문화시설의 증가에 따른 현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는 문화시설의 이용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이수용 외 2인, 2005; 양숙미·정건채, 2011; 유진이, 2008; 홍영균 외 2인, 2009). 넷째는 지역성이나 문화성에 대한 연구로서 문화시설이 궁극적으로 장소성과 지역성이 반영된 건축물로서 이해되는 것이다(홍광택·박정근, 2010; 박정근, 2013; 김봉애·김수희, 2014). 다섯째는 지역복합문화시설의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는 연구로서 친환경건축이나 폐교를 활용한 문화시설의 제안, 전시·문화시설의 디자인 개념의 분석과 같은 연구이다(박열, 2014; 이용규, 2013; 류임우, 2008).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이라는 범주 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세부분류라 할 수 있는 전시기능만을 가진 건축물 혹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2.2 국내 박물관과 미술관 현황

3) 이광노, 2010, 건축계획, pp. 392-396.

박물관은 박물관법에 의해 역사, 예술, 민속, 자연과학 등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함으로써 교육적 배려 하에 일반의 이용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발간한 전국문화시설총람을 보면(2012. 12. 31 기준)⁴⁾, 우리나라에 등록된 박물관의 수는 총 740개소로 경기도가 127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 110개소, 강원도가 74개소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 백만명 당 시설수로 살펴보면, 제주가 99.36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강원도가 48.09개소, 서울 10.79개소, 경기도 10.50개소이며, 부산이 4.52개소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미술관의 수는 총 171개소로 경기도가 36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이 32개소, 강원도는 10개소이다. 이를 인구 백만명 당 시설수로 살펴보면, 제주가 30.84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전남으로 9.48, 강원도는 6.5개소로 전남에 이어 세 번째 많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박물관(미술관 포함)의 현황을 OECD 주요국가의 박물관 1개 당 인구수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박물관 현황이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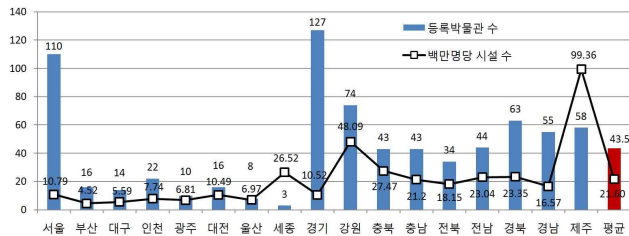


Fig. 1. Number of Museum in Korea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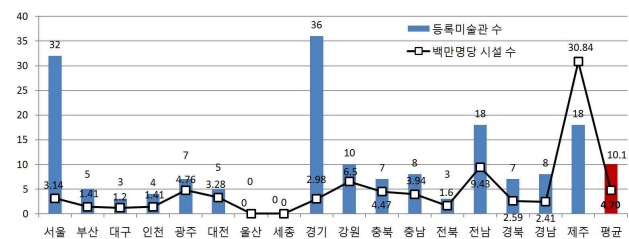


Fig. 2. Number of Art Museum in Korea⁷⁾

2.3 강원도 등록박물관과 등록미술관 현황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 현황을 살펴보면(2012. 12.31 기준)⁸⁾, 강원도에는 총 74개의 등록박물관과 10개의 등록미술관이 소재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영월군에 가장 많은 수가 분포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강릉시에 등록박물관이 13개, 등록미술관이 1개 소재하고 있어, 강원도 내에서는 춘천시나 원주시에 비하면 박물관의 수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1>

그러나 강릉시 통계연보(2012.12.31. 기준)에는 국공립 및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수가 15(2)로 등록이 되어 있다. 즉 동일한 시기를 기준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통계연보와 문화관광체육부의 전국문화시설 총람에서의 데이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전시문화시설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Status of Registered Museum and Art Museum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총계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전국	740	358	287	95	171	40	124	7	911
강원도	74	43	26	5	10	1	9	-	84
춘천시	8	5	1	2	1	-	1	-	9
원주시	6	1	4	1	1	-	1	-	7
강릉시	13	7	4	2	1	-	1	-	14
영월군	19	7	12	-	-	-	3	-	21

3. 강릉지역 전시문화시설 사례조사 및 분석

3.1 사례조사 전시문화시설의 개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총 28개의 전시문화시설의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2>와 같다. 시설의 명칭을 보면, 박물관(15), 전시관(5), 기념관(2), 갤러리(2), 미술관(1), 역사관(1), 홍보관(1), 아트월드(1)로 사용되고 있다. 설립 및 운영주체를 보면, 사립이 15개, 공립이 11개, 대학이 2개로서 과반수 이상이 사립이다. 입장료는 13개의 시설이 무료이며, 15개의 시설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1) 위치

강릉시(2013.12 기준)는 1개 읍, 7개 면, 13개 행정동(39법정동), 146행정리(65법정리)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28개 전시문화시설의 위치를 보면, 19개의 시설이 13개 행정동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의 시설이 1개 읍과 4개의 면에 위치하고 있다. 강릉시는 서쪽 태백산맥과 동쪽 동해바다에 접해 있으므로 이러한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읍과 면에 있는 전시문화시설은 해안을 따라 4개가 분포되어 있으며, 3개는 태백산맥을 형성하는 중산간 지역인 백마봉에서 고루포기산이 연결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Fig. 1>.

행정동에 위치한 23개의 전시시설은 강릉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경포대와 오죽헌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4) 문화관광체육부, 2013 전국문화시설 총람
 5) 박정근, 제주지역 박물관의 의장적 특징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5(1), 2013. pp. 45-54.
 6) 상기 그래프는 전국문화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13(2012.12.31.기준)을 연구자가 재편집한 것임.
 7) 상기 그래프는 전국문화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13(2012.12.31.기준)을 연구자가 재편집한 것임.
 8) 문화관광체육부, 2013 전국문화시설 총람

Table 2. General Information of Case Facilities

번호	시설명칭(○)	설립 및 운영주체	개관 년도	규모	입장료
1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대학	1969	지하2층, 지상5층	무료
2	관동대학교박물관(○)	대학	1976	지상3층	무료
3	오죽헌 율곡기념관	공립	1976	지상1층	유료
4	강릉선교장 민속자료전시관	사립	1984	지하1층, 지상1층	유료
5	대관령박물관(○)	사립→공립	1993→2003	지하1층, 지상2층	유료
6	에디슨사이언스박물관(○)	사립	1992	지상3층	유료
7	참소리죽음기박물관(○)	사립	1992	지상3층	유료
8	오죽헌시립박물관(○)	공립	1992	지하1층, 지상1층	유료
9	강릉커피박물관(○)	사립	2001	지상2층	무료
10	강릉통일공원박물관 (합정 및 안보전시장)(○)	공립	2001	지상2층	유료
11	행정역사관(○)	공립	2001	지하1층, 지상18층	무료
12	강릉 홍길동전박물관	사립	2002	지상1층	무료
13	숲사랑홍보관(○)	공립	2003	지하1층, 지상2층	무료
14	하슬라 아트월드	사립	2003	지하3층, 지상3층	유료
15	강릉단오문화관	공립	2004	지하1층, 지상2층	무료
16	갈골한과체험전시관	사립	2005	지상2층	유료
17	김시습기념관(○)	공립	2005	지상1층	무료
18	소금강돌박물관	사립	2006	지상2층	유료
19	강릉시립미술관(○)	공립	2006	지하1층, 지상2층	무료
20	허균,허난설헌기념관(○)	공립	2006	지상1층	무료
21	최용렬갤러리	사립	2010	지하1층, 지상5층	무료
22	동양자수박물관(○)	사립	2011	지상3층, 전시2층	유료
23	정동진시간박물관 (타임뮤지엄)	사립	2012	지상2층	유료
24	영화박물관	사립	2013	지하1층, 지상2층	유료
25	우암미술갤러리	사립	2013	지상2층	무료
26	환희컴박물관	사립	2013	지상3층	유료
27	강릉생태체험학습전시관 (자연아놀자)	사립	2013	지상2층	유료
28	주문진해양박물관	공립	2014	지상2층	무료

* (○) : 2013 전국문화시설 총람에 등록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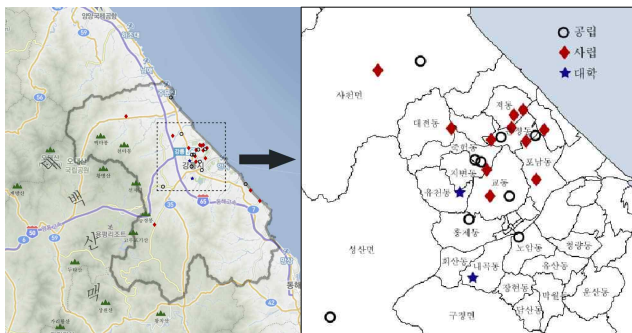


Fig. 3. Distribution of Exhibition-culture Facilities

(2) 개관시기

개관 시기를 보면, 전시문화시설의 수가 199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대 이후에 71.4%의 전시시설이 개관하였다. 이는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이는 2000년 이전에 설립된 8개의 전시문화시설 중에서 4개가 사립인 것에서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립인 2개도 강릉시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인 이율곡과 신사임당과 관련된 오죽헌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2000년 이전까지는 공공 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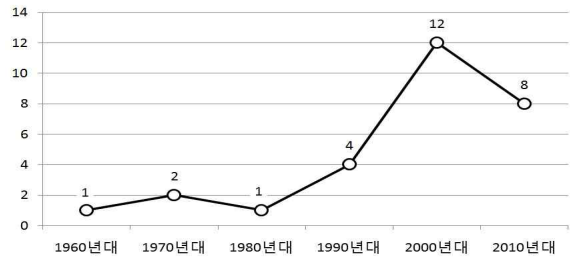


Fig. 4. Open Year of Exhibition-culture Facilities

가장 먼저 설립된 박물관은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으로 1969년에 개관하였다. 이 박물관은 1968년에 강릉원주대학교의 전신이었던 강릉교육대학 교사를 신축하던 중 전사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유물이 다량 출토되면서 박물관이 시작되었다. 대학 운영의 또 다른 박물관은 관동대학교박물관으로서 1964년 7월에 리빙스톤 학감의 포남동에서 출토된 100여 점의 청동기시대 유물을 모태로 1976년에 민속박물관이 설립되고, 1977년에 종합박물관으로 승격하였다. 오죽헌율곡기념관은 1976년 정화사업 때 문성사(文成祠)·율곡기념관(栗谷紀念館)이 신축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역의 문화시설들이 증가하기 이전까지는 강릉에 있는 2개의 대학, 오죽헌율곡기념관, 강릉선교장 내에 있는 민속자료전시관이 강릉지역의 전시문화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대상 전시시설의 규모 및 구조

연구대상 시설의 규모를 보면(Fig. 5), 지상층수가 2층인 경우가 13개로 가장 많으며, 1층과 3층이 각각 6개씩으로서 전체적으로 3층 이하의 건축물이 25개로서 89%를 차지하고 있다.9)

건축물의 구조를 보면, 철근콘크리트조의 시설물이 17개로서 가장 많고, 철골조의 5개 시설물까지 포함하면 22개의 시설물들이 현대적 기술공법을 활용한 구조이다. 민속자료전시관과 같은 전통적인 내용의 전시물이나 김시습, 허균, 허난설헌과 같은 역사적인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목구조 양식을 띠는 경향이 있다.

9) 본 연구대상의 시설물 중 18층 건축물은 행정역사관으로서 이는 강릉시청의 지하에 있는 전시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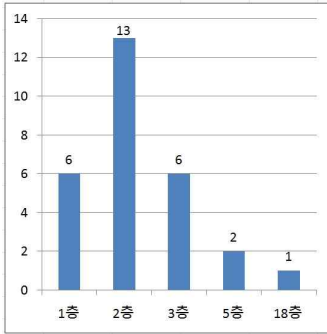


Fig. 5. Building Scale of Exhibition-culture 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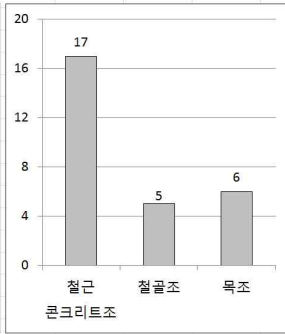


Fig. 6. Structure of Exhibition-culture Facilities

(4)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주용도

본 연구는 전시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주용도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주용도를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 13개로서 가장 많으며, 관련 용도로서 교육연구시설, 문화재전시, 전시시설, 민속관으로 등록되어 있다<Fig. 7>.

그러나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7사례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은 공공적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행정적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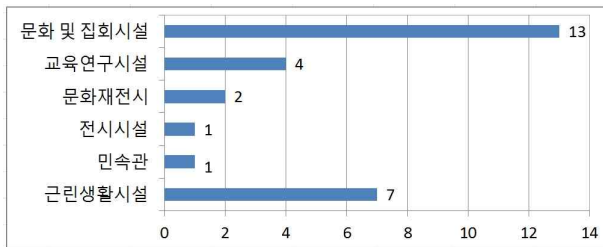


Fig. 7. Space Usage on Registered Building Data

(5) 주차공간

28개 전시문화시설의 주차공간 현황을 보면,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과 같은 옥내 주차장은 없다. 시설의 부지 내

에 주차장이 존재하는 경우가 23개로 옥외 주차장이다. 이 외의 5개의 전시문화시설의 경우는 부지 외부의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3.2 타 시설 및 공간과의 관계

본 연구대상인 전시문화시설에 있어서 동일 부지 내 혹은 동일 건축물 내에 존재하는 다른 시설이나 공간의 용도와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시문화시설과 타 시설 및 공간과의 관계를 시설 및 공간의 성격에 따라 같이 단독형, 복합형, 공원형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3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Table 3>. 본 연구에서 타 시설이나 공간은 주차장이나 주차공간은 제외한 용도를 의미한다.

첫째, 단독형은 전시용도를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주된 기능을 하면서 그 이외에 존재하는 시설이나 공간은 그 전시내용과 관련하여 지원적 성격이 있는 경우이다. 즉 전시내용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공간이나 부지 내에 다른 시설물들은 주용도인 전시목적 을 위한 부속공간에 해당한다. 7개의 전시문화시설이 이에 해당하였다. 사립인 4개의 시설인 경우에는 전부 유료인 반면 대관령박물관을 제외한 공립의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되는 있다. 공립의 경우는 무료로 운영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관령박물관이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된 2003년을 포함하여, 7개의 전시문화시설 모두가 2000년대 이후에 개관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복합형은 총 16개의 시설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동일 부지 내 혹은 동일 건축물 내에 전시용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이다. 타 공간의 용도가 공공적 성격을 지닌 문화, 교육, 행정적 측면의 경우를 공공형으로, 상업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상업형으로 구분하였다. 운영현황을 보면, 공립과 대학의 경우는 무료인 반면 사립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공립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전시뿐만 아니라 강릉지

Table 3. Relation to Other Facilities

유형	시설 수			시설 및 공간의 성격	동일 부지 혹은 건축물 내의 용도	비고	
	시설 수	운영주체	입장료				
단독형	7	공립 : 4 사립 : 3	무료 : 3 유료 : 4	전시용 시설 혹은 공간만 존재하거나 전시 내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존재함	전시, 체험, 교육, 홍보, 기념품 판매	· 전시내용과 관련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공공프로그램 운영	
복합형	공공형	9	공립 : 3 사립 : 4 대학 : 2	무료 : 5 유료 : 4	동일 부지 혹은 동일 건축물 내에 공공적 성격을 지닌 다른 시설(공간)이 존재함	전시, 교육, 체험, 행정, 문화행사, 커뮤니티 공간, 기념품 판매	· 전시내용과 관련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행사 운영 · 대학 캠퍼스 내에 박물관 존재
	상업형	7	사립 : 7	무료 : 4 유료 : 3	동일 부지 혹은 동일 건축물 내에 상업적 성격을 지닌 다른 시설(공간)이 존재함	미술품 판매, 소매점, 커피숍, 음식점, 숙박시설	· 미술품 판매를 위한 공간 · 상업적 이익을 위해 전시공간을 계획함
공원형	5	공립 : 4 사립 : 1	무료 : 1 유료 : 4	시설이 공원의 일부로서 외부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함	공원, 음료 및 기념품 판매	· 지역의 상징성이 반영됨 · 지역민을 위한 공용공간의 역할	

역의 역사와 문화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단오문화관>은 강릉단오제의 홍보전시, 체험 및 공연관람 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주문진해양박물관>의 경우에는 지역민들에게 센터를 제공하여,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립인 4개의 시설은 <강릉선교장 민속자료전시관>, <동양자수박물관>, <에디슨 사이언스 박물관>, <참소리 축음기 박물관>이 해당한다. <강릉선교장 민속자료전시관>의 경우는 개인소유이지만, 1965년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 제 5호로 지정되어 국가 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의 공공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양자수박물관>은 강릉시내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강릉인 예술창작인촌'과 동일 건물을 사용하면서 지역사회의 문화진과 역할을 하고 있다. <에디슨 사이언스 박물관>과 <참소리 축음기 박물관>은 하나의 박물관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에 2개의 박물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일 부지 내에 존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공공형의 경우에는 비록 운영주체가 사립이라 할지라도 지역문화시설로서 공공적 역할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복합형에 있어서 상업형은 영리목적에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본 연구에서는 6사례가 나타났다. 6사례 모두 운영주체가 사립이다. 개인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 시부터 이러한 영리를 목적으로 전시공간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특히 갤러리인 경우에는 미술작품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이러한 상업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경우에 전시공간을 무료로 개방하여 이용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원형은 기본적으로 넓은 부지에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있는 경우로서 <강릉통일공원박물관>, <정동진시간박물관>, <허균.허난설헌기념관>, 그리고 강릉오죽헌 내의 <강릉시 시립박물관>, <오죽헌 율곡기념관>이 이에 해당한다. <통일공원박물관>은 통일 염원을 체계적 하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2001년 개관하였다. <정동진시간박물관>은 정동진역을 배경으로 한 <모래시계> 드라마와 해돋이관광명소의 이미지를 살려 정동진해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기차내부를 박물관으로 구성하였다. <허균.허난설헌기념관>은 강릉에서 출생한 역사적인 인물인 허균과 허난설헌의 생가를 중심으로 경포호수 주변의 부지를 공원형식으로 조성하였다.

이러한 공원형은 기본적으로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게 되며, 지역민을 위한 공용공간인 시민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다양한 시민활동과 행사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릉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지역문화의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공원형

의 경우에는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교통편의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형이라 할지라도 유료인 경우에는 시설부지의 경계인 울타리나 담장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무료인 경우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다.

3.3 접근 및 진입체계

연구대상 시설물의 접근 및 진입체계는 일반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접근과 자가운전을 통한 접근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자가운전을 통한 <도로→주차공간→시설물의 주출입구>까지의 동선체계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입장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분석하였다.

(1) 일반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접근

본 연구대상의 전시문화시설은 기본적으로 문화시설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부의 관광객들에게도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일반대중교통수단(버스)을 이용하였을 때, 28개의 전시문화시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각 대상시설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Fig. 8>, 「200m이상-300m미만」까지가 8사례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100m이상-200m미만」이 6사례로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27개의 사례가 600m미만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8개의 사례에 있어서 평균 거리는 약 280m로 나타났다.

버스정류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경우는 <강릉선교장 민속자료전시관>으로서 이 경우는 강릉선교장 입구 자체가 버스정류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가장 멀리 떨어진 경우는 약 920m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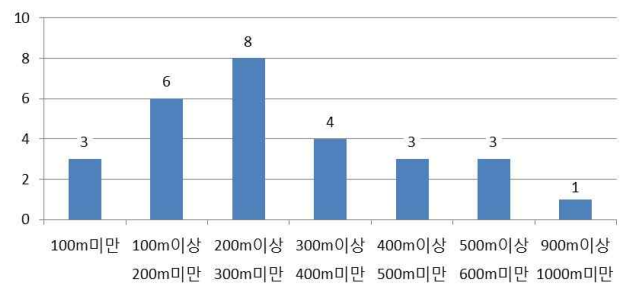


Fig. 8. Distance from Bus station to Facilities

김성희 외 2인(2001)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접근시간 및 거리와 대중교통이용률에 대한 연구¹⁰⁾에서는 접근거리가 길어질수록 개인 승용차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400-500m의 접근거리 혹은 6분 내외의 접근시간 지점에서 대중교통이용률에 변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500m이상 혹은 6분 지점에서 개인승용차를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하고 있다. 이 결과는 New

10) 김성희·이창무·안건혁, 대중교통으로의 보행거리가 통행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36(7), 2001. pp.297-307.

Urbanism의 TND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에서 추구하는 환경친화적이고 보행친화적인 대중교통위주의 개발을 위해 1/4마일의 보행가능거리개념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결과가 비록 출퇴근을 위한 통행수단으로서 대중교통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강릉시에 존재하고 있는 28개의 전시문화시설은 보행접근이 용이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접근편리성은 단지 거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버스의 배차시간이나 보행환경 등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차량통행에 의한 접근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므로 전시문화시설의 부지 내에 주차공간이 존재하지 않거나(4사례), 타 시설 및 공간과의 관계(3.2절)에 있어서 공공형에 해당하는 사례 중 운영주체가 대학인 경우(2사례)와 공원형인 경우(4사례)를 제외한 총 17개의 전시문화시설에 대하여 차량통행에 따른 접근체계를 분석하였다.

자동차를 이용한 접근은 「도로→주차공간→시설물의 주출입구」라는 흐름의 동선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체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로→주차공간」의 흐름에서는 도로와 접하는 부지공간의 용도로서, 「주차공간→시설물의 주출입구」의 흐름에서는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주차공간의 배치형태로서 구분하여 먼저 유형을 분류한 결과 <Table 4>와 같이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A, B, C유형은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주차공간이 있는 경우로서 시설물의 주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동선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난다. 반면 C와 D유형은 시설물과 주차공

간이 모두 도로와 접하는 형태이며, F유형은 도로가 시설물을 관통하는 형태로서 단지 1사례가 나타났다.

이러한 6가지 유형 중, A와 B유형이 5사례와 4사례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주차공간이 주출입구의 정면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F유형을 포함해 10사례에 해당한다. 주차공간이 주출입구의 측면에 배치되어 있는 B유형과 E유형으로 5사례가 나타났으며, 주출입구의 후면에 주차공간이 배치된 C유형은 2사례로 나타났다.

① A유형

<도로→주차공간→시설물의 주출입구>의 진입체계가 가장 단순한 유형으로 5사례가 나타났다. 도로에서 주차장에 진입하면서부터 문화전시시설의 주출입구를 한꺼번에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시 내용에 관련한 홍보를 주출입구 주변공간을 활용할 때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차장과 주출입구 사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이용객의 수가 많을 때에는 번잡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대상의 전시문화시설에 있어서는 주차공간과 주출입구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주차공간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숲사랑홍보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Fig. 9>.



Fig. 9. Approaching Pattern of Forest Love Hall

② B유형

주차공간이 전시시설의 한쪽 벽면과 접하게 되는 유형이다. 도로에서 시설의 부지로 진입할 때 주출입구를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처음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차공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연결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동선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부지가 작은 경우에 계획되는 유형으로서, 부지면적의 협소로 인한 차량진입과 보행동선이 분리되지 않아 동시에 많은 관람객이나 차량이 집중될 경우 혼잡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Fig. 10. Approaching Pattern of Gangneung Museum of Art

Table 4. Approaching Type from Road to Main Entrance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주차공간의 배치형태		
	정면배치 (10)	측면배치 (5)	후면배치 (2)
도로와 접하는			
	A유형 (5)	B유형 (2)	C유형 (2)
부지공간의			
	D유형 (4)	E유형 (3)	
용도			
	F유형 (1)		

* (N) : No. of Exhibition-culture Facilities

강릉시립미술관<Fig. 10>의 경우 미술관 입구의 차량 동선과 보행동선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주차장이 도로와 접해 있는 배치이므로 차량통행을 위한 통로를 계획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C유형

주차공간이 시설물의 뒤편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정면에 이용객이 도보로 방문할 수 있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보행자와 차량통행 간의 동선이 분리되어 계획되어 있다.

본 연구대상의 전시문화시설에 있어서는 부지면적이 넓은 <대관령시립박물관>과 <단오문화전시관>이 이러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Fig. 11>과 같이 <단오문화전시관>의 경우는 주도로를 향하여 시설물의 주출입구를 두고, 차량동선을 부지 전체를 감싸 안는 유형으로 배치되어 보행자와 차량동선의 분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Fig. 11. Approaching Pattern of Dano Cultural Building

④ D유형

전시문화시설과 주차공간이 도로와 접하는 유형이다. 그러므로 시설물의 부지에 진입할 때부터 건물과 주차장의 관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주차 이후의 이용자 동선흐름은 A유형과 동일하여, 주차장과 시설물의 현관사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때, 이용객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혼잡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문화전시시설은 <갈골한과체험전시장>이다. A유형의 사례인 <숲사랑홍보관>과 비교하여 볼 때, 주차공간이 시설물의 주출입구의 정면에 배치되어 있다. A유형의 경우는 주차공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외부공간을 조성하였으나, D유형의 사례인 <갈골한과체험전시장>의 경우는 주차공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출입구의 전면 공간을 주차뿐만 아니라 한과와 관련한 행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2. Approaching Pattern of Galgol Korean Traditional Cooky Experience Space

⑤ E유형

전시문화시설의 주출입구와 주차장의 배치관계는 B유형과 동일하나 도로와 접해 있는 부지의 용도면에서는 시설물과 주차공간 모두가 도로와 접해 있는 D유형과 같은 형태이다. 전시문화시설의 주출입구의 전면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 보행자, 그리고 주차 이후의 이용객 등의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문진해양박물관>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데, 본 박물관 건물에는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인 쉼터가 함께 계획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출입구를 도로와 접하여 계획한 사례이다. 그러나 시설물의 주출입구 전면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주출입구가 도로와 바로 접해 있어 보행안전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13. Approaching Pattern of Jumunjin Ocean Museum

⑥ F유형

도로가 건축물을 관통하는 형태로서 <도로-주차공간-주출입구>와의 관계가 독특한 유형이다. 처음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나, 주차공간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을 때에는 혼란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가 공공소유가 아닌 시설물의 소유자의 소유인 경우에 계획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의 전시문화시설에 있어서는 하슬라아트월드가 해당한다.



Fig. 14. Approaching Pattern of Haslla Art World Museum

4. 결론

본 연구는 강릉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전시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실태 및 현황, 다른 시설 및 공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도, 그리고 진입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홍보관, 갤러리 등 전시와 관련된 건축물, 공간, 시설을 조사하여, 총 28개의 전시문화시설

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8개의 전시문화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를 보면, 사립이 15개, 공립이 11개, 대학이 2개로 나타났다. 19개의 전시문화시설은 강릉지역의 시내 중심부인 행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의 시설은 읍과 면에 위치하고 있다. 읍과 면에 위치한 9개의 시설 중 4개의 시설은 해안선을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3개의 시설은 태백산맥을 향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시문화시설은 강릉의 상징인 경포대와 오죽헌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시문화시설의 개관시기를 보면, 199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회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시설물의 구조는 현대적 공법인 철근, 철골, 콘크리트조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민속자료와 같은 전통적인 내용의 전시물이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기념관 등의 시설물은 목구조 양식을 띠는 경향이 있다.

둘째, 동일 부지 내 혹은 동일 건축물 내에 존재하는 다른 시설이나 공간의 용도와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전시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단독형, 다른 기능의 가진 공간이 존재하는 복합형, 그리고 전시문화시설이 공원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형태인 공원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복합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복합형 내에서도 공공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 전시문화시설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도는 사회와 시대에 대응하면서 변화하고 있는데, 1990년대 이전의 전시문화시설은 전시만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최근에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행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시문화시설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립운영인 경우에도 나타나 전시문화시설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시대에 대응하는 변화의 양상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 전시문화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측면으로도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이용객을 끌어들이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와 시대에 대응하는 양상은 전시문화시설이 공원의 일부로서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과 공간은 강릉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지역문화의 상징적인 공간이면서 지역민을 위한 공용공간인 시민공원으로서 다양한 시민활동과 행사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강릉지역의 전시문화시설에 대하여 일반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접근성을 파악한 결과, 28개의 전시문화시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각 대상시설물까지의 평균 거리는 약 280m로 나타났으며, 27개의 사례가 600m미만의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00m이상의 접근거리부터 개인승용차를 이용한 출퇴

근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New Urbanism의 TND, TOD에서 보행가능거리를 1/4마일을 제시하는 결과에서 볼 때, 강릉지역의 전시문화시설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인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접근편리성은 단지 거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버스의 배차시간과 간격, 보행환경 등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도로→주차공간→시설물의 주출입구」라는 흐름의 동선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볼 때, 주차공간은 정면배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측면배치, 후면배치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에서 주차공간으로의 진입형태, 주출입구와 주차장 사이의 공간확보, 주차공간을 위한 외부공간 조성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강릉지역의 전시문화공간시설에 있어서 접근방식이 나타났다.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시설의 증가와 자동차 이용률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문화시설에 있어서 자동차를 이용한 접근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배현주, 자치구 지역문화시설 전시실 활성화 방안 연구: 해운대문화회관을 중심으로,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2009. 석론.
2. 윤계영, 지역별 문화시설의 분포 및 규모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대학원, 2009. 석론.
3. 김성희·이창무·안건혁, 대중교통으로의 보행거리가 통행수단선택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36(7), 2001. pp.297-307.
4. 김창진·이범우, 지방도시에 있어서 문화공간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대회, 10(2), 1990. pp.259-264.
5. 김태일, 제주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분포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제주도연구, 32. 2009. pp.1-16.
6. 박정근, 제주지역 박물관의 의장적 특징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5(1), 2013. pp. 45-54.
7. 심재춘, 복합문화시설의 입지결정요소 조사분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10), 2005. pp.105-112.
8. 우위칭·임영배, 문화시설의 정의와 그 이용현황분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5), 1991. pp.251-259.
9. 홍광택·박정근, 제주지역 현대건축의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2(2), 2010. pp. 117-124.

접수일자 : 2015. 1. 10
심사완료일자 : 2015. 2. 20
게재확정일자 : 2015. 2. 22